

# '봄내음축제' 전통시장에 활력소

### 도내 11개 전통시장 참여... 문화공연·할인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매출액 증가

도내 11개 전통시장에서 개최된 봄내음 축제가 축제기간 내 방문객 및 매출액의 증가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1개 전통시장에서 시장별 특색과 테마를 살린 문화공연, 체험행사, 고품질 상품 이벤트, 할인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성황리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전주남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풍남문상점가, 서부시장상점가) 5곳과 익산(익산매일, 중앙, 서동시장) 3곳, 군산(군산신영시장, 공설시장) 2곳과 고창전통시장 등 총 11개 전통시장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전통시장 대규모 세일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K-Sale 페스타와는 별도로 전통시장만의 특색과 테마를 갖고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로, '봄 여행주간(4.29~5.14)'과 연계해 진행됐다.

시장별로 준비한 행사내용 외에 거점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보물찾기'와 가족단위 방문 유입을 위해 이색 공통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로보카폴리 스탬프 투어', '전통시장 방문 인증샷 이벤트', 그리고, 그간 전통시장에 대한 3대 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시장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서약과 선언을 하는 '고객서비스 3대 혁신운동'도 병행해 축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봄내음축제에서 전주남부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와 U-20월드컵대회 등 굵직한 지역축제의 연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월드슈퍼탈렌트 패션쇼를 시작으로 JTF 현장라운지, 영화열차운행, U-20대회홍보관, 아시안 연상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신영시장은 축제기간 2만원이 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참여 가능한 '100% 당첨 플렛 경품행사'를 통해 시장 방문을 촉진시켰고, 가족과

함께하는 '로보카폴리 스탬프투어'를 확대 진행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했다.

전주모래내시장은 시장의 새로운 특색을 살린 '비식투어'를 진행해 시장 내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 삼삼오오 즉석두부, 만두, 누룽지 등 즉석 수제 먹거리를 맛보게 하는 등 지도를 들고 맛집 찾기를 하듯 모래내시장만의 재미를 발견하도록 했다.

또한 익산매일중앙서동시장은 의류상품은 축제기간 70%까지 일부상품 특가판매를 실시하면서, 로보카폴리 스탬프투어 확대 진행, 어린이 대상 시장왕관 만들기 체험, 무료 팝콘 제공, 주사위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한 경품행사 등으로 가족단위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신영시장은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영시장에서 구매가능한 시장상품권과 기념품 및 근대역사박물관 무료입

장권을 1,000여명에게 증정해 축제기간 유입 고객이 평상시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다.

고창전통시장은 청보리밭 축제와 모양성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춰 '성도 보고 장도 보자'는 장보기 프로그램을 도입, 관광객을 중점 대상으로 시장상품권 증정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해 방문객이 평상시 대비 40%이상 증가했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전북에서는 이번 전통시장 봄내음축제에 11개 전통시장이 참여해 시장별 다채로운 행사가 모두 성황리 진행됐다"며 "이번에 참여시장별로 불었던 축제 열기가 지속돼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이번 봄내음축제를 정례화해 참여시장을 확대하고, 달린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홍보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은 15일 지역본부 상향실에서 농협 공동비제조장 운영 전복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1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사업결산과 2017년 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북농협이 올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우량 퇴비를 생산하고 불량퇴비 유통을 근절해 농업인 영농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농협 퇴비는 지역 내 축산과 경종농업이 함께 공존, 공영하는 상생농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협에서 직접 생산한 퇴비에 걸맞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서 연임(임기2년)된 유창수(회현농협 조합장) 협의회장은 "고품질 퇴비 생산 및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유기질비료를 지난해보다 2만2,000톤 많은 29만 9,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 LH전북, 18일 오후 2시 개최... 집주인 임대사업, LH 공실 위험 부담

LH공사 전북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본부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및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이 도입됐으나, 도심 내 주택 또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주택소유자 등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저리의 기금융자를 받아 직접 기존 주택을 신축,경수선,매입 후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면 LH는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 개량방식과 매입방식으로 나뉜다.

건설개량방식은 내대지나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을 집주인이 철거 후 용지를 받아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도매,장판창호 교체 등 간단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또한, 매입방식은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LH는 이들 주택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수준에서 임대관리해 준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LH가 공실 위험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매입사업은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공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5년 이내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계층에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공공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고령자 또는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들의 대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시 및 완주군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규모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를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매입 후 LH가 관리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단지규모가 150세대 이상으로 준공 후 10년 이내 아파트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및 정읍시가 해당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및 LH의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63-230-6184, 6205)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주공, 전세자금 특례보증 마련

주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15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사는 도청의 지원을 받아 이달 중 전북지역 각 시(군)청 홍보담당자와 특례보증제도의 효과적인 안내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제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 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이용할 수 있고 보증한도, 보증료, 신용도 평가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꿈꾸는 학교' 사업 지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5일 전주 홈플러스 완산점 문화센터에서 '2017 꿈꾸는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가졌다.

'2017 꿈꾸는 학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 시작해 제3회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이 인기있는

직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미리 체험해 자신만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금융지식도 전달하게 된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미래세대 아동들이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건강하고 밝은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 상하 독거노인 전기설비 점검

한전 전력연구원은 지난 12일 고창 전력시험센터 인근 독거노인 74가구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및 조명기구 교체작업을 시작했다.

고창전력시험센터 직원들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용산 마을 독거노인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7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와 기존 조명기구를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고창전력시험센터는 지난해에도 센터 인근 상하면의 36개 마을회관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및 조명기구 교체작업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정기 고창전력시험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조달청, 성실섬유·효성그린푸드 현장소통 활동

임중식 전북조달청장은 15일 도내 전통식품 및 식품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성실섬유, (유)효성그린푸드의 제조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 활동을 펼쳤다.

임 청장은 판로 확보 및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전통식품 및 식품이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해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임중식 전북조달청장은 "전통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우리 고유문화상품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고유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순창이 참좋다

## 순창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